



<루니>

루니·호나우두 '복수전' 나선다

잉글랜드-포르투갈, 브라질-프랑스 2일 격돌

루니, 유로 2004 포르투갈과 8강서 부상

호나우두, 지난 98년 결승서 佛에 패배

1998년 7월12일 파리 생드니스타디움. 호나우두(30·레알 마드리드)는 아픈 다리를 끌고 '아트사카' 프랑스와 힘겨운 결전을 치르고 있었다. 지네딘 지단(레알 마드리드)의 헤딩슛 두 골이 터졌고 삼바군단은 속절없이 물러서야 했다.

그의 곁에는 히바우두, 베베투 등이 있었지만 힘을 쓰지 못했다. 호나우두는 90분을 다 뛰었지만 에마누엘 프티에게 쐐기골을 얻어맞고 주저앉았다.

2004년 5월21일 다시 생드니스타디움에 선 호나우두는 국제축구연맹(FIFA)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열린 '센테니얼 매치'에서 프랑스와 다시 만났다. 하지만 그의 강수는 그레고리 쿠페(리옹)의 푼에 안겼다.

2006년 7월 2일 오전 4시 프랑크푸르트 발트 슈타디움에서 호나우두는 세 번째로 프랑스와 만난다. 지난달 28일 도르트문트에서

'검은 별(Black Stars)' 가나의 골문을 헛다리짚기로 돌파하며 월드컵 통산 최다골 신기록(15골)을 세운 호나우두는 드러내놓고 '복수'를 말하진 않는다. 호나우두는 그저 "더 많은 골을 넣어야 한다"고만 할 뿐이다.

축구중가 잉글랜드의 '외로운 원톱' 웨인 루니(21·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7월2일 0시 켈젠키르헨에서 대적하는 8강 상대 포르투갈과 '악연'이 있다.

2004년 유럽선수권대회(유로2004) 8강전. 루니는 잉글랜드가 포르투갈을 1-0으로 리드하고 있을 때 상대 수비수의 거친 태클에 오른발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다.

그리곤 병원에 실려간 루니는 잉글랜드가 승부차기 끝에 탈락하는 모습을 본을 삭이며 지켜봐야 했다. 루니는 이번 포르투갈전에 임하는 결의를 밝히면서 '복수심'을 '전'의로 연결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포르투갈을 만나는 루니가 마냥 담담하기만 하기는 힘들 것 같다. 지난 2월 프리미어리그에서 자신을 다치게 한 것도 포르투갈 대표 파울로 페헤이라(첼시)였다. 어려모로 포르투갈에 좋지 않은 부상의 기억을 가진 루니는 스벤 에란 에릭손 감독의 약속대로 다시 원톱 스트라이커로 출격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호나우두>

■ 8강전 관전 포인트

베컴-피구 "중원을 장악하라"



<베컴>

▲잉글랜드-포르투갈(2일 0시·켈젠키르헨)
'축구 중가' 잉글랜드와 포르투갈의 경기도 최대 '빅 매치' 가운데 한 경기로 꼽힌다.
그 중에서도 잉글랜드와 포르투갈의 간판 스타인 데이비드 베컴(레알 마드리드)과 루이스 피구(인터 밀란)가 벌이는 중원 싸움이 큰 볼거리다.
게다가 잉글랜드 '공격의 핵' 웨인 루니(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포르투갈의 '짧은 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치열한 신인왕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여 관심을 더욱 끌고 있다.
역대 전적에서 3승5무2패로 포르투갈에 조금 앞선 잉글랜드는 베컴의 녹슬지 않은 프리킥 실력과 루니의 빠른 돌파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중원의 핵'인 프랭크 램퍼드(28·첼시)가 지난달 30일 캄프 누 현장에서 발목을 빼다 현재 부상 부위가 상당히 부어오른 것으로 알려져 전력에 누수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램퍼드는 포르투갈전에 반드시 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스벤 에란 에릭손 잉글랜드 감독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대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포르투갈은 올해로 34세가 된 피구에 의지해 4강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황금 세대'의 선두 주자인 피구가 포르투갈을 2004년 유럽선수권대회에서 결승에 진출시킨데 이어 자국 대표팀의 전성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피구>

베어벡 "홍명보와 계속 일하고 싶다"

한국 대표팀 감독이 내 꿈을 펼쳐보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코치 일을 해오면서 이제는 홀로 설 때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제의가 들어왔다.

-왜 아드보카트 감독과 러시아에 동행하지 않았나.
▲수석코치에서 감독으로 승격하면서 부담감과 책임이 막중할텐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한국을 유럽과 같이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국은 코치가 선수와 감독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감독과 동등하게 선수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최근 인터뷰 조사에서 한국 팬 85% 이상이 내가 감독으로 되기를 희망했고 각계각층에서 많은 성원을 받고 있다.

-언제 새 감독으로 낙점된 걸 알았나.
▲월드컵기간에 대한축구협회가 먼저 내게 의향을 물어왔고 바로 승낙했다. 팀 아드보카트 감독이 러시아에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정중히 거절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언제 새 감독으로 낙점된 걸 알았나.
▲월드컵기간에 대한축구협회가 먼저 내게 의향을 물어왔고 바로 승낙했다. 팀 아드보카트 감독이 러시아에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정중히 거절했다.

한국 대표팀 감독은 내가 바라던 것이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있고 특히 한국인의 정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한국 대표팀 감독이 내 꿈을 펼쳐보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왜 아드보카트 감독과 러시아에 동행하지 않았나.
▲오랫동안 코치 일을 해오면서 이제는 홀로 설 때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제의가 들어왔다.

-수석코치에서 감독으로 승격하면서 부담감과 책임이 막중할텐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한국을 유럽과 같이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국은 코치가 선수와 감독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감독과 동등하게 선수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최근 인터뷰 조사에서 한국 팬 85% 이상이 내가 감독으로 되기를 희망했고 각계각층에서 많은 성원을 받고 있다.
-언제 새 감독으로 낙점된 걸 알았나.
▲월드컵기간에 대한축구협회가 먼저 내게 의향을 물어왔고 바로 승낙했다. 팀 아드보카트 감독이 러시아에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정중히 거절했다.

PGA 뷰익챔피언십

최경주 첫날 부진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뷰익챔피언십 첫날 좋지 않은 성적으로 출발했다.

최경주는 지난달 30일 미국 코네티컷주 크롬웰의 TPC리버하일랜즈골프장(파70·6천820야드)에서 열린 1라운드에서 1오버파 71타를 쳐 공동 79위에 머물렀다.

선두 자리에는 5언더파 65타를 친 히스 슬로판(미국), 피터 로나드(호주), 해리슨 프레이저(미국), 스티브 버플랜드(미국) 4명이

함께 올랐다.
최경주는 드라이브샷과 아이언샷의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쉽게 그린을 공략하지 못했다.

7번홀(파4) 보기를, 9번홀(파4) 버디로 만회한 최경주는 12번홀(파4)에서 더블보기를 범했고 13번홀(파5) 버디를 잡았지만 14번홀(파4) 보기에 이어 18번홀(파4) 버디를 잡는 다소 어수선한 스코어카드를 적어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불참한 가운데 작년 대회 우승자 브래드 피슨(미국)은 버디는 2개에 그치고 보기 6개를 쏟아내 4오버파 74타로 공동 137위에 머물러 컷 통과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IA, 신동주 방출

KIA타이거즈는 지난달 30일 "한국야구위원회에 외야수 신동주(34)의 웨이버 공시를 신청하고 투수 곡국희(24)에 대해서도 신고선수를 맡소했다"고 밝혔다.

신동주는 이날 현재 1군에서 8경기에 출

장, 13타수 1안타 타율 0.077을 기록했고 곡국희는 2군에서 4경기에 등판, 2홀드 방어율 6.75의 부진한 성적을 보여왔다.

한편 이날 오후 6시30분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KIA-삼천전전은 우선으로 순연했다. 순연된 경기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단>

지단-호나우두 "진점 승부"

▲브라질-프랑스(2일 4시·프랑크푸르트)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꼽히는 호나우두(레알 마드리드)는 프랑스와 16강전에서 예전의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각오다.
브라질은 1998년 프랑스월드컵 결승 당시 프랑스에 0-3으로 패해 챔피언 자리를 내줬고 호나우두는 지네딘 지단(레알 마드리드)의 명성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호나우두는 우승컵을 거머쥐기는 했지만 프랑스가 조별리그 탈락해 복수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16강에서는 가나에 3-0 완승을 거두며 아프리카의 돌풍을 잠재운 브라질은 호나우두를 비롯해 호나우두지뉴(FC바르셀로나), 아드리아누(인터 밀란), 호비뉴(레알 마드리드) 등 세계 최강의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티에리 앙리(아스날)를 보유한 프랑스의 전력도 만만치 않아 쉽사리 승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비록 1승2무란 초라한 성적으로 G조 2위를 했지만 16강전에서 '무적 함대' 스페인을 3-1로 누르며 우승에 대한 꿈을 되살렸다.
지단도 이날 경기에서 승리에 쐐기를 박는 추가골을 터뜨리며 부활을 예고, 호나우두와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프랑스는 브라질과 역대 전적에서도 7차례 맞붙어 2승3무2패로 막상막하의 실력을 보이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호나우두지뉴>